

더 깊은 묵상

희망을 전하는 성악가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의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

그도 한 때는 불치의 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 7월이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한참 신나게

연습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는데,

백혈병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꿈쩍없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는 히스기야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구술과 힘든 화학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아냈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게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임을 믿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바로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쓴다고 했습니다.

“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감격과 희망속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과

삶을 전하는 전도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 은 쟁반에 금 사과/ 이현찬